

안녕하세요? 저는 홍순향수녀입니다.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신앙의 유산을 받아서, 1987년 사랑의 씨튼수녀회에 입회하여 33년째 수도 생활 접어들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저와 여동생, 언니와 소꿉놀이를 하면, 저는 주로 엄마 역할을 하였고, 언니와 여동생은 보자기를 머리에 뒤집어 수녀 베일처럼 쓰고 두 손을 모으면서 "나는 수녀님이야~"라고 말했던 언니와 여동생은 결혼하였고, 저는 지금까지 수도 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은 인간의 계획과 전혀 다르시기에 하느님은 저의 평생을 비추어 주시는 주님으로 저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 부르심에 매 순간 기쁜 마음으로 응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2년 한국 관구 총회에서 우리 수녀들이 시대의 필요함에 응답하는 생활을 결의했고,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 중 <여성의 인권과 아동보호>에 관련한 사도직에 관심을 기우리게 되었는데 당시 경기도 부천 지역에 가정 폭력 수위가 높아지면서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의 필요가 절실하였습니다. 이에 2003년 부천시에 "여성의 쉼터"로 문을 열어 올해 17년이 되었습니다.



쉼터는 단순히 재워주고, 먹여주는 곳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람의 생명을 일으켜 세우는 곳이고, 가정 폭력 피해자가 결정하는 그것이 무엇이든 또 하나의 "선택"을 하기 위한 힘과 지혜를 모으기 위한 곳입니다. 쉼터에서 제공하는 개별 상담과 집단 상담을 통해 내공을 쌓고, 심신회복치료프로그램을 통해 자연 안에서 자유로움을 만끽하게 하며, 마음의 치유 과정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긴장된 위기 상황에 쉼터가 있어서, 그들의 신변 보호를 할 수 있음에 보람을 느낍니다. 그동안 쉼터를 이용한 가정 폭력 피해자 숫자는 780명에 달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폭력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음의 문턱까지 경험한 여성들을 우리는 "생존자"라고 까지 부릅니다.

쉼터에서 머물다 가정으로 돌아간 이들과 현재 쉼터에 머무는 피해자들의 모임들을 통해, 부부 상담의 기회와 자립에 대한 정보와 지원을 하며 희망을 가지고 살도록 위로와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마더씨튼께서 가정을 돌보시며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전 하였듯이, 저 또한 가정 폭력 피해자들에게 부드러움과 너그러움으로 그들의 고통과 함께 동반 하며 하느님의 부르심을 응답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Hello! I am Sister Hong, Sun Hyang. Inheriting the legacy of faith from my parents, I joined the Sisters of Charity of Seton Hill in 1987. I have been living religious life for 33 years. When I was young, whenever I played with my older sister and my younger sister, I mainly played my mother's role, and my sisters played the role of religious sisters by wrapping their heads with cloth like a nun's veil. Both of them are married and I am living as a religious. God's plan is totally different from that of humans. Led by the Lord who shines on my whole life, I am trying to answer God's call with joy in every moment.



At the 2002 Korean Provincial Chapter, we resolved to respond to the needs of the times, among the priorities for the poor, we became interested in the ministries on Women's Human Rights and Child Protection. As the level of domestic violence increased in Bucheon City, the need for domestic violence protection facilities was



urgent. In 2003, a "shelter for women" in Bucheon-si opened, and it has served for 17 years.

A shelter is not just to provide a place for sleeping and eating, but a place to truly give life to a person again, and to enable the victim of domestic violence to make another "choice" through collecting wisdom and strength. Through individual counseling and group counseling provided by the shelter, the victims can build up internal strength, be healed, and enjoy the freedom in nature through the mind and body recovery treatment program.

In an anxious and tense time of crisis in society it is rewarding to have a shelter like this, so that we can protect the women. To date, 780 domestic violence victims have used our shelter. We call them "survivors", who did not escape the chains of violence for many years and experienced the threshold of death.



Through meetings with those who have stayed in the shelter and those who are currently staying here, we are comforting and encouraging them to live with hope, and providing information and counseling for independent living. Just as Mother Seton cared for the family and shared God's love and mercy with them, I also want to answer the call of God with tenderness and generosity to the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by accompanying them in their pain.

Thank you.

